

김태형 신인답지 않은 피칭... 타이거즈 왕조 재건 '청신호'



KIA 타이거즈의 2025신인 김태형이 18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불펜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불펜장에 울린 박수소리, KIA 타이거즈 미래가 성장하는 소리였다. 비가 이어지던 KIA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18일 모처럼 해가 났다. KIA 선수단은 좋은 날씨 속에서 2025시즌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냈다. 이날 오전에는 캠프 투수조장 유승철과 기대주 이도현 그리고 '2025 루키' 김태형이 나란히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특히 1라운드 지명 선수인 김태형을 보기 위해 김주찬 벤치코치와 손승락 수석코치가 자리를 했다. 김태형은 이날 31개의 공을 던지면서 캠프 4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김태형은 이날 피칭에서는 직구 최고 146km, 평균 구속은 143km를 찍었다. 김태형은 자신이 보유한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등 변화구도 점검했다. 김태형은 "몸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공도 잘 가고 제구도 좋아서 만족스러웠다. 직구 세계 던지려고 했다"며 "10점 만점에 7점이다. 공들이 하나씩 휘는 게 있어서 그게 마이너스다. 스플리터도 빠졌다"고 자신의 피칭을 평가했다.

**불펜 피칭 최고 구속 146km
자신있는 모습에 코치진 박수
"내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
선배 따라다니며 많이 배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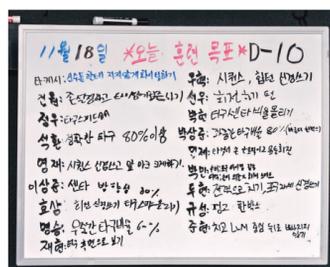
프로 입단을 앞둔 어린 선수라 아직 힘과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큰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피칭을 지켜본 손승락 수석코치는 몇 차례 박수를 쳤다. 그 이유는 '커브'였다. 김태형은 "원래 커브를 던졌는데 브레이크이 약하고, 각이 작아서 손승락 코치님이랑 코치님들이 가르쳐주셨다. 가르쳐 주신 대로 던졌는데 좋아졌다. 코치님이 뒤에서 박수 쳐주셔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김주찬 벤치코치도 피칭이 끝난 뒤 "회전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김태형에게 칭찬을 하기도 했다. 배우는 대로 적용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지만 김태형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감'이다. 김태형은 캠프 첫 피칭에서 자신의 템포대로 공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날 이범호 감독과 심재학 단장까지 신인의 피칭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김태형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

고 자신의 공을 던졌다. 손승락 수석코치는 "대성할 친구다. 이제 막 프로 와서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며 "가장 강점은 어느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템포 조절하는 것이다. 어린 선수들은 누가 보고 있으면 잘 보이고 싶어서 세계 던지는데 처음에 감독, 단장님이 보는데도 가볍게 던졌다"고 신인답지 않은 김태형의 여유를 이야기했다. 김태형도 "원래 스타일이 무리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가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다. 몸이 되는대로 던지는 것인데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첫 피칭이니까 제구하면서 적당히 던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KIA는 매년 마운드의 '셋별'이 탄생하면서 타이거즈 왕조 재건에 청신호를 켜다. 마무리 정해영을 시작으로 선발 이도현과 윤영철, 좌완 최지민이 등장해 마운드 젊은 힘을 보여줬다. 올 시즌에도 황동화, 김도현이 선발전에 힘을 실어줬고 광도규도 필승조로 우뚝 서는 등 '젊은 마운드'는 KIA의 큰 힘이다. 그리고 2025시즌에는 김태형이 KIA 마운드 계보 보기에 도전한다. "스프링캠프에 가게 되면 윤영철 선배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는 김태형이 신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또 다른 셋별로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코치도 선수도 "훈련 목표 스스로 정하고 성장"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훈련 전 일과가 새로 생겼다. 바로 오늘의 훈련 목표 세우기다. 덕아웃 한 곳에는 '오늘 훈련 목표'를 적는 칠판(사진)이 준비됐다. 야수들은 칠판에 직접 자신이 설정한 이날 훈련 목표를 적는다. 18일 김석환은 "정확한 타구 80%이상", 김규성은 "핑고 한박스" 오선우는 "회전하기 팀", 변우혁은 "시퀀스, 힙턴 신형 쓰기"를 목표로 써냈다. 신명승은 "우중간 타구 비율 60%"를 적었다.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60%는 무슨 의미냐? 반 조금 넘게 하면 되는 거냐?"고 웃자 신명승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70%, 모래는 80%를 하겠다"고 답했다. 주어진 훈련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통해서 세밀하게, 효율적으

로 또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코치들도 목표를 설정해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이날 다케시 배터리 코치의 목표는 "선수들한테 지지 않게 파이팅하기"였다. 투수들에게는 '개인 과제' 시간이 있다. 이날 투수조의 훈련이 끝난 뒤 이도현과 성영탁은 '개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장에 남아 스스로 훈련을 이어갔다. 이도현은 "힘쓰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즘 옆으로 힘을 썼다"며 마운드에서 나홀로 웨도우 피칭을 이어갔다. 성영탁은 "공 던질 때 힘을 폭발적으로 쓰는 게 약해서 연습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개인 과제다. 개인이 목표를 설정한다. 와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wool@kwangju.co.kr

한국, 프리미어12 4강 좌절...김도영은 돋보였다



투런포 등 4타수 3안타 4타점
호주 꺾으며 조별리그 3위 마감

한국 야구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B조 조별리그를 3위(3승 2패)로 마쳤다. 류중일 감독이 이끈 한국은 18일 대만 타이베이 텐무 구장에서 열린 대회 B조 예선 5차전에서 호주에 5-2로 승리했다. B조 6개국 중 상위 2개 팀이 얻는 슈퍼라운드(4강) 진출권을 놓친 뒤에 경기를 치러 한국 대표팀의 승리 세리머니는 크지 않았다. 2015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오르고, 2019년 2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이번 3회 대회에서는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일본이 4승으로 한 경기를 남은 상황에서 B조 1위를 확정했고, 1차전에서 한국을 6-3으로 누른 대만이 3승 1패로 2위를 확보했다. 대만은 18일 쿠바에 패해 3승 2패가 되어도, 한국은 대회 동률팀 순위 결정 방식인 '승자승'에서 대만에 밀린다. 한국은 2차전에서 쿠바(8-4)를 눌렀으나 3차전 일본(3-6)에 패해 슈퍼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도미니카공화국(9-6), 호주를 연파했지만, 대만과 일본에 패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프리미어 12에서 조기에 퇴장했다. 한국은 3.2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선발 고영표(KT), 결승타와 쉐기 투런포를 포함해 4타수 3안타 4타점으로 활약한 김도영(KIA·사진) 덕에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호주를 눌렀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수비수'는?

내달 1일 '리얼글러브 어워드'

프로야구 선수들이 '올해 최고의 수비수'를 직접 선정한.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이하 선수협)가 오는 12월 1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글러브 어워드'를 개최한다. 선수협은 지난 11일 국내 프로야구선수 820여 명에게 후보자를 공개한 뒤 1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KIA에서는 김도영(올해의 선수), 양현종(선발투수), 이우성(1루수), 김선빈(2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등 6명이 후보에 포함됐다. 김선빈과 박찬호는 '베스트 키스톤콤비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선수협은 지난 2022년부터 '베스트 키스톤콤비상', '베스트 배터리상' 등 센터라인과 투수와

포수 커플상을 도입해 리얼글러브 어워드만의 특색있는 재미를 더했다. 또 지난해부터 '리얼글러브 투수상'을 '선발투수상'과 '구원 투수상'으로 세분화한 것에 더해 올해는 구원 투수상에 총 6명의 후보(홀드 3명·마무리 3명)를 올렸다. 김도영 외에도 삼성 구자욱·원태인, 키움 김혜성·송성문이 '올해의 선수' 수상을 노린다. 올해의 선수는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기준 상위 5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되며 오전 11시부터 SBS 스포츠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 퓨처스리그 수상자로 KIA에서는 투수 김현수, 성영탁, 유지성이 선정됐다. 한편 선수협은 지난 2021년 수비 중점의 시상식임을 강조하기 위해 PCA(Players' Choice Awards)에서 '리얼글러브 어워드'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꿈나무 '광주컨트리·신지에 주니어 골프' 활약

유민혁·서효주 남녀 고등부 1위

광주·전남 주니어 골퍼들이 '제10회 광주컨트리·신지에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활약했다. 최근 광주컨트리클럽(심전·설산 코스)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유민혁(서강고1), 서효주(함평골프고2)가 남녀 고등부 1위를 차지했다. 이틀에 걸쳐 36홀 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23명·중등부 40명·고등부 32명 총 95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 유민혁은 최종 합계 6언더파 138타, 서효주는 최종 합계 5언더파 139타를 기록하며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 중인 유민혁은 지난 8월 강원 원주에서 열린 '제11회 신한동해 남자야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15언더파 265타로 우승하며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등 선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초등 남자부에서는 황호준(목포영산초6)이 3위, 초등 여자부에서는 정지우(장성중앙초6)가 2위에 올랐고 주하성(화양중2)과 이혁중(송일중1)이 중등 남자부 2·3위, 성해인(송광중3)과 박유선(송일중3)이 중등 여자부 2·3위에 자리했다. 남녀 고등부에서는 박건용과 천승호(이상 서강고2)와 표승현(순천방동고1)이 뒤를 이었다. /서민경 기자 minky@